

미국 수입물가: 유가 없이 비연료가 이끈 상승, 코어재화 비용압력 강화

2026.09.16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8월 미국 수입물가는 유가 요인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비연료 부문이 가속하며 오른 것으로,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코어재화 비용 압력이 한 단계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 8월 수입물가, 유가 없이 비연료가 이끌며 상승 반전 — 수입발 코어재화 비용압력 강화

미국 수입물가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상품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앞서 비용 압력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 신호로 쓰인다. 직전 7월 발표(수정치 기준 전월비 -0.3%)에서는 헤드라인은 내렸지만 속을 이루는 비연료 물가는 이미 오르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8월 발표에서는 그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8월 헤드라인 수입물가는 전월비 +0.7%로 상승 반전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은 유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연료 수입물가는 -0.1%로 오히려 헤드라인을 끌어내리는 방향이었고, 대신 비연료 수입물가가 전월 +0.3%에서 +0.8%로 가속하며 헤드라인 상승폭보다 더 크게 올랐다. 즉 이번 달 상승분은 사실상 전부 비연료, 다시 말해 유가와 무관한 상품 가격 상승에서 나왔다. 이 상승은 상류 원자재부터 최종 소비재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비연료 산업용품·원자재가 +2.0%로 완성금속·첨단제조 품목이 견인했고, 자본재가 +0.9%(반도체·산업기계·통신장비),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도 +0.5% 올랐다. 유일하게 보합을 유지한 것은 자동차·부품(0.0%)이다. 전년동월비로 봐도 헤드라인 +7.0% 중 상당 부분은 지난해 낮았던 연료 가격 기저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기저를 걷어낸 비연료 상승률(+5.5%)조차 2022년 최대치(+5.9%)에 근접해 있어, '헤드라인은 착시고 실체는 온건하다'는 해석은 이번 수치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별로는 중국(+1.0%, 2004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유럽연합(+0.9%)이 오른 반면 캐나다(-0.8%)는 내려, 이번 상승을 달러 약세 하나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는 현재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는 국면에서 명백한 악재로 읽힌다. 지금 연방준비제도(Fed)가 마주한 질문은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추가 긴축이나 동결 장기화 논거가 얼마나 강해졌느냐'인데, 유가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비연료 가속은 '이번 물가 상승은 에너지 일회성일 뿐'이라는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실제로 시장은 이번 주를 포함한 향후 세 차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96~99%로 반영하고 있어, 이번 지표는 그 프라이싱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이번이 8월 속보치이며 향후 3개월간 수정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중국·금속발 상승분에서 관세가 얼마나 전가됐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앞으로는 9~10 월 비연료 수입물가가 다시 +0.3% 이하로 되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비용 상승이 향후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코어재화 항목으로 실제 전가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 8 월 수치가 보여준 '수입발 코어재화 비용압력 강화'라는 판단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16 (이번)	8 월 미국 수입물가는 유가 도움 없이 넘게 올랐다. 헤드라인이 전월비 -0.3%에서 +0.7%로 반전했지만 상승을 만든 건 연료가 아니라 비연료였고(-0.1% 대 +0.8%), 이는 원자재부터 소비재까지 폭넓게 번진 수입발 코어재화 비용 압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2026-08-18	7 월 미국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 월도 개정치 기준 -0.3%였으니 표면적으로는 물가 압력이 누그러지는 그림이다. 하지만 이 하락은 사실상 연료 가격 한 항목에서 비롯됐다. 연료 수입물가가 7.2% 급락했는데, 이는 5 월에 12.1% 급등했던 것이 되돌려진 결과에 가깝다. 유가 요인을 걷어내고 나면 그림이
2026-07-17	월간 수입물가 모멘텀이 뚜렷이 둔화(+2.1% → +0.3%)한 가운데 수출은 첫 월간 하락(-0.6%)을 기록했으나, YoY 기저효과(Import +7.1%, Export +10.2%)는 여전히 높아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점 통과 신호와 구조적 코어재화 강세의 구분이 필수.
2026-06-16	수입물가 YoY 6.7% (2022 년 8 월 이후 최고)로 구조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월별 기준으로는 수입·수출 모두 증속이 둔화 신호를 보이며 사이클 정점 근처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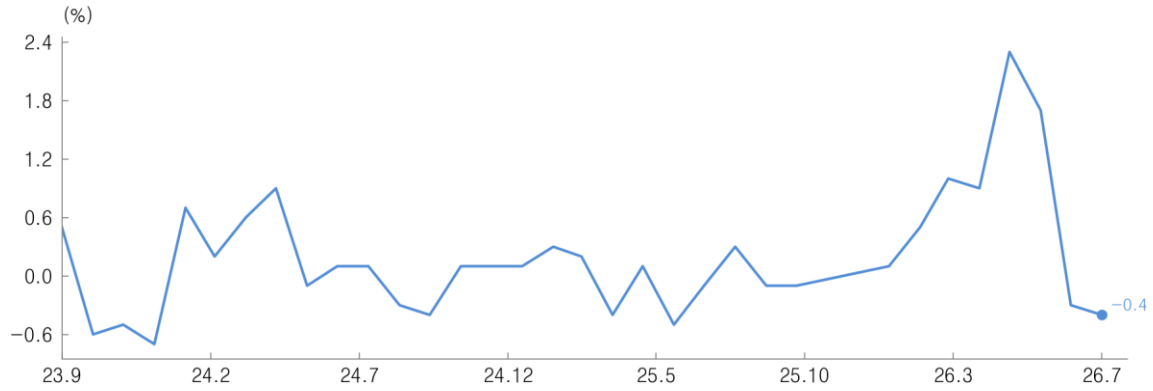
8 월 미국 수입물가 — 유가 없이 비연료 주도로 상승 반전

지표	8 월 전월비	7 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맥락
헤드라인 수입물가	+0.7%	-0.3%	+7.0%	유가 기여 없이 상승 반전
연료 수입물가	-0.1%	-6.6%	+26.8%	천연가스 -1.0%가 하락 견인
비연료 수입물가	+0.8%	+0.3%	+5.5%	헤드라인 웃돌며 가속, 2022 년 최대치 근접
비연료 산업용품·원자재	+2.0%	-0.9%	-	완성품속·첨단제조가 견인
자본재	+0.9%	-	-	반도체·산업기계·통신장비 상승
소비재(자동차 제외)	+0.5%	-	-	상류 원자재발 압력이 소비단계까지 확산
중국발 수입물가	+1.0%	-	+3.0%	2004 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월간 상승
캐나다발 수입물가	-0.8%	-2.3%	-	중국·EU 와 반대 방향, 환율 단일설명과 배치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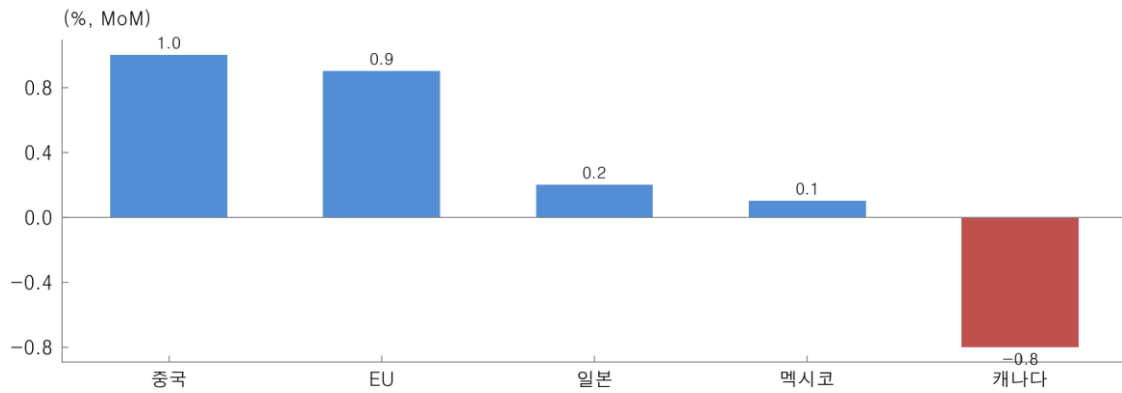
지표	값
수출 전월대비(%)	0.6
수입물가 전월대비(%)	0.7

미국 수입물가(전월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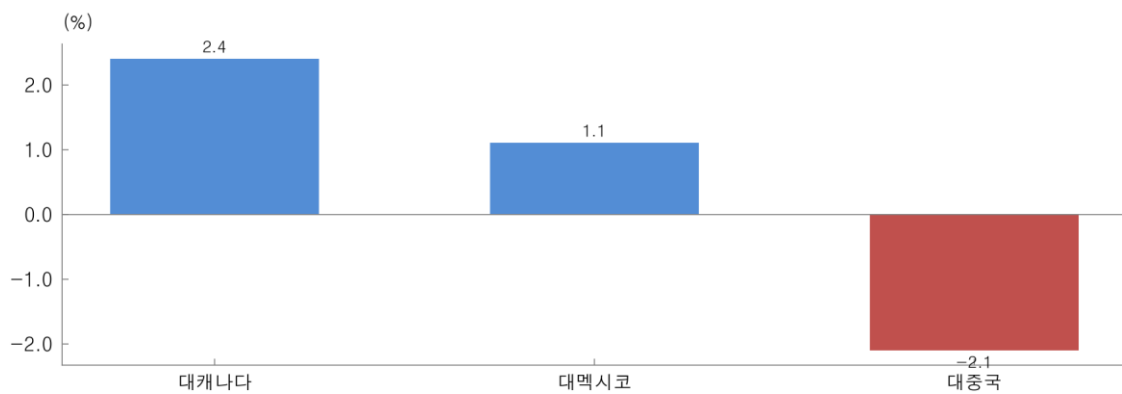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8월 미국 수입물가 국가별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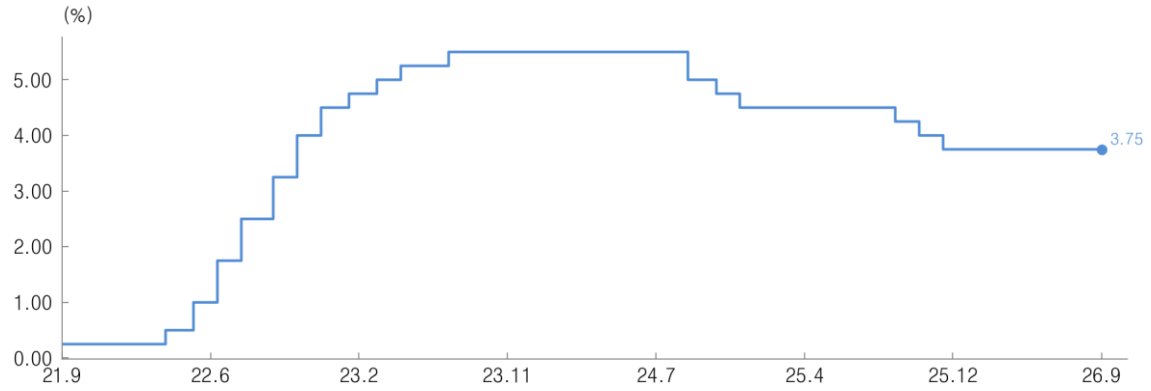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8월 대(對)국가별 교역조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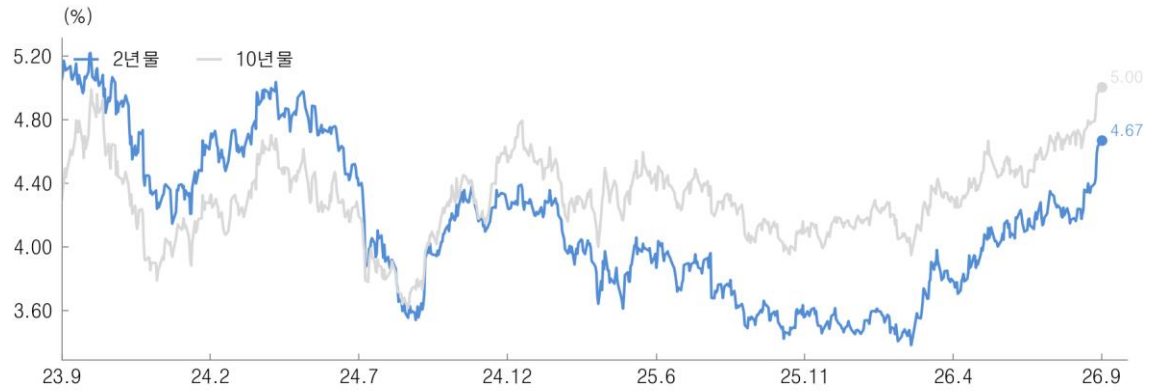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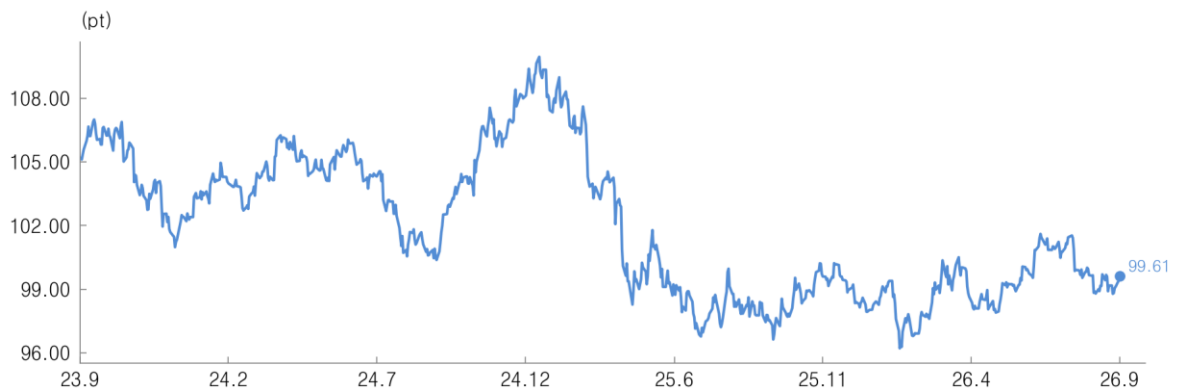
자료: CEIC(2026-09-15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